DBGuide.net 퍼블릭 컨퍼런스

마스터 데이터로 성공적인 SOA 구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최하는 DBGuide.net 퍼블릭 컨퍼런스가 지난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성공적인 SOA를 위한 데이터아키텍처' 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SOA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데이터아키텍처를 제시하며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혜성** 기자

최근 기업들의 IT투자에 있어 화두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가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DBGuide.net 퍼블릭 컨퍼런스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SOA를 위한 데이터아키텍처 전략에 대한 강연과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모두 여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는 엔코아컨설팅, 알티베이스, 한국IBM, 한국MS 등의 기업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적용 사례를 전달했다.

'SOA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데이터아키텍처 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화식 엔코아컨설팅 대표는 "SOA환경에서 하나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핵심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SOA 구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 마스터 데이터 구축은 필수 요소이고 특히 SOA 환경에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 마스터 데이터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 대표는 마스터 데이터의 구체적 구축 전략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된 모델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한 구조 ▲다양한 고객 관계 지향 ▲수행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 등의 시스템 기반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통신분야에서의 SOA기반 데이터아키텍처 전략'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동훈 엔코아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장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 통합 전략을 사례로 들며 "SOA

환경에서 통합 마스터 데이터의 데이터 모델 구축 범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객 접점에서 발생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스터 데이터 구축은 단순한 데이터의 통합에 대한 기술력이 아닌 전문가 · 기술 · 지식(Knowledge) 등 세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개체 통합, 룰(Rule) 기반, 데이터 허브, 전사 표준화 준수 등의 네가지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알티베이스, 한국IBM, 한국MS에서 발표자가 나와 SOA에서 메인 메모리 DBMS 적용 및 사례, SOA와 정보서비스 및 그 사례, 호주 Commonwealth은행 CRM 시스템의 MS SOA 적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대한민국 DB 설계 공모대전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올해로 세번째로 실시된 대한민국 DB설계 공모대전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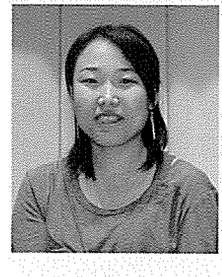
공공 및 민간부문의 DB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우수 DB 설계 방법 및 사례를 널리 보급하고자 마련된 대한민국 DB설계 공모대전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알티베이스, 한국IBM,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오라클, 한국사이베이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모대전은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정보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요구사항 분석서, 데이터 표준 정의서, 논리 DB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주관기관 내부 심사인 1차 심사와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구성된 2차,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여섯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상에 선정된 문화관광부의 한수정 씨에게는 부상으로 200만원이 수여됐으며 알티베이스상, 한국IBM상, 한국마이크로소프트상, 한국오라클상, 한국사이베이스상 등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도 부상으로 100만원이 각각 시상되었다.

인터뷰 대한민국 DB설계 공모대전 대상 수상자_ **한수정**(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내 실력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계기 됐다"



대한민국 DB 설계 공모 대전에 참여한 동기는

관련 동호회를 통해 튜닝, 모델링 등을 접하면서 DB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DBGuide.net에서 보내온 메일을 통해 이번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모델링 공부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 접하는 업무에 대한 생소함과 호기심 등이 모델링 공부의 자극이 되었고, 산출물을 전문가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공모 대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했나

기존에 모델링 공부를 할 때는 업무설명서를 파악하면서 습관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논리모델을 구축하여 업무범위가 축소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공모전에서 8월말까지는 논리모델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무분석을 하면서 틈틈이 요구사항분석서, 데이터표준정의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주제 자체가 생소해 업무자체를 잘 모르니 업무범위를 확정 및 축소시키는 습관이 어느 정도 고쳐지고, 위의 절차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논리모델을 작성할 때도 산출물을 토대로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향후 공모 대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전문가들에게 현재 실력에 대한 평가와 충고를 객관적으로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최측에서는 모든 응시자들에게 간단한 평가를 해준다면 참가자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공모전 주제가 생소하여 업무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업무설명서의 문맥을 분석하여 업무를 정의했지만,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찾아보긴 했지만 정확히 모르는 업무를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정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표면화하여 진행한다면 좀 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델링의 절차 숙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